

# 동물도 생각하고 사랑하고 미워한다

## 동물 안의 인간

노르베르트 작서 지음·장윤경 옮김



인간을 일컬어 흔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사고 능력, 다시 말해 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과연 그럴까. 가끔 TV프로에서 동물들이 조련사 지시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동물에게도 일정 부분 사고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단순히 학습을 넘어, 인간의 '이상'과 같은 능력이 존재할 거라는 예상 말이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과 동물은 엄격히 다르다고 여겨졌다. 동물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동물에 대한 생각이 편견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동물 또한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능력과 유전자와 환경 영향을 받아 다양한 행동 양식을 드러낸다.

"동물도 생각하고 행동하고 미워한다." 동물행동학의 세계적 선구자 노르베르트가 펴낸 '동물 안의 인간'은 인간과 동물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저자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너무나 인간적인 동물 이야기를 풀어낸다.

모든 동물의 행동은 번식에 성공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동물들의 생존과 번식, 물락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밝혀냈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유전적 기질을 보유한 동물은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동물은 인간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음 세대로 전이된다. 반면 그렇지 못한 동물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연 선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기기 위해서라면 동물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개체는 학습도 가능하고,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 행동 양식이 변모된다.

"조작적 조건화 학습은 동물들이 먹이를 찾고 사회 규칙을 익히며, 새로운 생활공간을 개척하거나 특정 사건들의 진행 과정을 원활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이런 학습 형식은 동물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여러 과정을 지속적으로 익히고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작금의 1인가구 증가는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달라지게 했다. 자연스레 '인

간-동물' 관계도 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증가는 그 대표적 예다. 동물에 대한 언론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학대나 유기를 다룬 기사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사람들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동물의 복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동물이 행복해하는지, 아니면 불행해지는지 나아가 동물 친화적인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물론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려동물'이라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말에 내포된 의미는 간단치 않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더러 가족처럼 여기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저자는 '인간과 동물이 점점 비슷해지

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동물에게는 인간과 비슷한 속성이 늘어나고, 동물 안에 인간적 특징이 많다는 것이다.

"생존과 번식에 성공한 개체들은 세대가 이어질수록 주어진 환경에 한결 능숙하게 적응한다. 다시 말해 개체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행동을 설정하는 것이다."

책을 읽고 나면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은 편견이라는 사실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 저자는 "우리 역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이기에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이기적인 유전자에 따른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법이나 윤리와 같은 나름의 장치를 마련하여 이기적인 유전자에 지배당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학사상·1만5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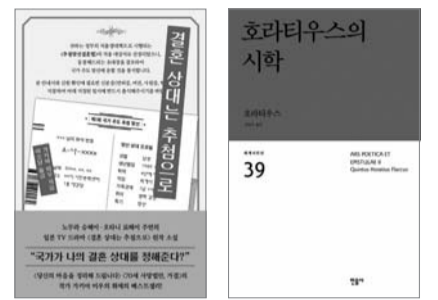
## 새로 나온 책

▲**긍정적 일탈주의자-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세계적인 행동 과학자인 프란체스카 지노는 전 세계 다양한 조직의 반항아들을 연구하는 데에 10년 이상을 바쳤다. 그리고 그 반항아들이 언제 어떻게 왜 규칙을 깨뜨리는지, 그러한 일탈적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개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지를 이 책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1만6000원〉

▲**장사는 돈 관리다=일본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에서 인기 꽃집 '캐기하나'를 운영하는 후루야 사토시. 교재 회사 영업 사원으로 20대에 연봉 8000만 원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지만 돌연 퇴사, 한 달간 꽃가꾸기를 배워 꽃집을 개업했다. 가게에 파리만 날라자 화계사에게 결산서 싸자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적게 팔아도 많이 남기는 '한계이' 원리를 배운 끝에, 파산 위기를 극복하고 V자 회복에 성공한다. 〈쌔넬퍼커스·1만5000원〉**

▲**결혼 상대는 추천으로=70세 사망 법안, 가결, '노후자금이 없습니다' 등 꾸준히 일본 사회의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해온 가키야미우가 추천맞선결혼법이라는 극단적인 설정과 이에 맞선결혼법이라는 미혼 남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시대가 공유하는 문제를 당차게 지적한다. 지은이 특유의 비판적이면서도 명쾌한 문장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금이책·1만3800원〉**



▲**호라티우스의 시학=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의 시각에서 시론을 펼치고 시학을 썼지만, 호라티우스는 시인으로서 창작 활동 제반과 시의 효용을 옹호하며 이를 시로 써냈다. 국내 최초로 호라티우스가 남긴 세 편의 서간시를 완역한 '호라티우스의 시학'이 고대 라틴어 대역으로 출간됐다. 호라티우스의 시를 전공한 김남우 박사의 번역으로, 문학뿐 아니라 서양 문화의 2000년 전통을 형성한 거대한 뿌리의 실체를 만난다. 〈민음사·1만원〉**

## 어린이·청소년 책

▲**3·1운동, 그 가족에게 생긴 일=민초들의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지은이 고수선나 아동동화작가는 자료를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골 마을에 살던 우경이네는 거국적인 독립운동으로 변화를 맞는다. 이야기는 일제가 모든 걸 수탈해 가고 땅마저 일제에게 빼앗아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시기의 우경이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내일여는책·1만1000원〉**

▲**내가 엄마야=초등학교 3학년 한승민 군은 동물행동연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한 군은 병아리가 태어나길 기다렸던 경험을 한 편의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닭이 낳은 알을 부화기에 넣어 부화시키면서 '내가 이 병아리의 엄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일을 떠올리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고래가숨쉬는도서관·1만2000원〉**

▲**너는 어떻게 학교에 가?=13개 나라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는 법을 엮었다. 엘살바도르에 사는 한 어린이는 말을 타고 학교에 간다. 캐나다 국경에서는 썰매를 타기도 한다.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와이**



파이(무선 인터넷)가 되는 케이블카를 타고 간다. 이들 어린이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 가는 이유는 사는 곳의 자연환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등교방법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겨레아이들·1만2000원〉

# 20명의 작곡가가 초대한 클래식 향연

## 클래식 브런치

정시문 지음



속적으로 출간해왔다. 저자는 음악을 전공하지도, 널리 알려진 전문가도 아니지만

클래식의 향연으로 초대하는 책이다.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 정시문은 '철학 브런치', '세계문학 브런치', '세계문학 브런치' 등 인문학 브런치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출간해왔다. 저자는 음악을 전공하지도, 널리 알려진 전문가도 아니지만

기의 클래식, 그 너머에서' 등이다.

책에는 음악가들의 생가, 악보, 유품 등 풍부한 자료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기존 브런치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인용문에 대해서는 영어 텍스트를 병행 표기했다.

저자는 "클래식 음악을 모르고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클래식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휴식처와 안식처이기도 하다"며 "클래식은 아름다움, 균형, 세심함, 정교함 등에 대한 감각과 인식을 세상 일거위 혼란과 혼동의 현실 너머에 있는 가치와 이상,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감지하고 명상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부·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2019-1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모집

**01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란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 취득을 위한 제도이다.

**02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03 학점은행제가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민학의 꿈을 펼칠 기회 확대하는 경우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에 포기한 학업에 이취학이 남는 경우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등 국가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04 운영과정**  
미용학 전공(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미용사 면허증 취득)  
사회복지학 전공(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이동학 전공(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05 학습자 특별 혜택**  
평생교육원 비학위과정 수강시 30% 할인 혜택  
등·하교시 스쿨버스 이용  
국가유공자 자녀 100% 장학 혜택  
광주여자대학교(원) 재학생 및 졸업생 30% 장학 혜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 업무 대행 및 무료 학습 설계를 비롯한 폭넓은 행정지원 서비스

**06 오프라인 수업의 특징**  
다양한 현지 실무 경험을 가진 교수의 실무형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교육에 대해 수강생 우선 배정으로 실습교육 수당이 편리합니다.  
관련 전공자들이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및 다양한 인프리카 구축됩니다.

### 비학위과정 모집

**01 운영 일정**  
접수 및 등록기간: 2019. 01. 28 ~ 03. 08  
교육기간: 2019. 03. 11 ~ 06. 21 / 15주

**02 접수 방법**  
방문접수: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 월~금 09시~18시(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화/팩스접수: ☎ 062-950-3583, 3585 / 팩스 062-950-3645  
e-mail접수: always@kwu.ac.kr  
우편접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정학증명서 1부(해당자만)

**03 수강료 납부 방법**  
신용카드 결제: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무통장 입금: 광주은행 / 148-107-307803 / 예금주: 광주여자대학교  
\*유의사항: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알리기를 함께 기재 (예: 홍길동840101)  
-수강생과 입강자 이름이 다를 경우 확인 전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한반감면 대상자는 수강료 입금 전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해당 증명서류 제출  
-증빙서류는 매학기 제출해야 하며 발급 후 3개월이 지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04 특전(비학위과정에 한함)**  
수강료 감면혜택 부여(증빙서류 필요)  
-공무원, 기존수강생: 10% 감면  
-만 60세 이상 수강생, 국가유공자 본인: 20% 감면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직계가족: 20% 감면  
-장애인 본인(급~3급): 30% 감면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30% 감면, 휴학생은 2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감면  
-기판단체회원: 10~30% 감면(인원수에 따라 차등)  
과정 수료시(출석률 70% 이상 충족) 총정액 명의 수료증 발급  
스쿨버스 이용 가능(학기 중 광주 전역 운행)

**05 유의사항**  
공휴일, 국경일은 휴강  
수강생 수가 모집인원의 50% 미달 시에는 폐강될 수 있음  
사정에 따라 수업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교재비, 재료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업시작 후 수강 포기 시는 평생교육원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환불됨

전공	개설과목
미용학 전공	기초드라이싱실 외 3 * 주간반(월, 수) 09:00~18:00 (15주) * 과목당 학점: 3점 모집인원: 30명 - 과목당 수강료: 180,000원
이동학 전공 (영유아보육학 전공) 필수 및 대안교육과정 운영	놀이지도 외 17 * 주간반(월, 화, 수) 09:00~15:00 (15주) * 과목당 학점: 3점 모집인원: 40명 - 과목당 수강료: 150,000원
사회복지학 전공	가족지원 외 2 * 야간반(월, 수, 목) 17:00~23:00 (15주) * 과목당 학점: 3점 모집인원: 40명 - 과목당 수강료: 150,000원

### 06 문의처

-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아동관 1층 평생교육원
- 전화/팩스: ☎ 062-950-3583 / 팩스 062-950-3645
- 홈페이지: http://always.kwu.ac.kr

### 문화예술 교육과정

NO	과목명	요일	강의시간	수강인원	정원	강사명	비고
1	내일(국가자격증)	월	18:30-21:00	30명	20	장다희	
2	내일(아트&창의)	화	10:00-13:00	30명	20	손혜영	
3	메이커(국가자격증)	수	18:00-21:00	30명	20	김선수	
4	부동산경영학	목	19:00-21:00	20명	20	김선수	
5	특사(국가자격증)신선지도사	화	10:00-13:00	17명	20	심영자	
6	대외(기술)특사(기술)특사(기술)특사(기술)	주/아	수 10:00-12:00 목 19:00-21:00	18명	20	김태숙	
7	심리상담사 2급	목	19:00-21:00	20명	20	고희영	
8	한자한문지도사(세종)	금	09:10-13:00	36명	15	선병국	24주
9	한자한문지도사(세종)	토	09:10-13:00	36명	15	선병국	24주
10	마음열어 주는 감성스피치	목	19:00-21:00	20명	15	박지아	12주
11	슬로리딩/독서사범부터지도사	화	10:00-12:30	18명	20	김태숙	
12	영양학(식품영양학)	화	19:00-21:00	15명	20	양지영	
13	인도스요리/영양학(영양학)	화	18:30-20:30	20명	15	최경희	
14	*방과후 돌봄부 지도자	수	10:00-12:00	20명	20	이슬기	
15	*방과후 돌봄부 지도자	목	10:00-12:00	20명	20	이슬기	
16	*방과후 돌봄부 지도자	주/아	수 15:00-18:00 목 19:00-21:00	5명	20	노건희	5주

### 직업능력 교육과정

NO	과목명	요일	강의시간	수강인원	정원	강사명	비고
1	스프링(스프링)을 위한 마음정리 (공감/MBTI)	월	18:00-20:00	24명	20	김민정	15주
2	2차로 졸업하는 뒤 과학 이야기	화	19:00-21:00	15명	20	정영자/임은주	10주
3	미래를 준비하는 뒤 과학 이야기	수	10:00-12:00	20명	20	정영자/임은주	
4	한국무용(무용수준)	수	10:00-12:00	20명	15	백미선	
5	한국무용(무용수준)	수	13:00-15:00	35명	10	백미선	
6	검도 초·중급	화/목	18:00-20:00	20명	30	이재환	
7	난타	화	19:00-21:00	15명	15	이재환	
8	유형수사능력	화	09:30-12:30	17명	12	문영호	
9	기초부터 배우는 연필미술	월	10:00-12:00	17명	12	조경숙	
10	활판(활판)활판(활판)	월	19:00-21:00	15명	20	이은심	10주
11	시예(중급)	수	10:00-13:00	17명	15	고재문	
12	시예(중급)	수	10:00-13:00	17명	15	고재문	
13	멋진여행과 사진	주/아	화 10:00-12:00 목 19:00-21:00	15명	20	유태준	
14	한국전통춤(초급)	화	14:00-16:00	15명	20	백선숙	
15	한국전통춤(중급)	화	14:00-16:00	18명	20	백선숙	
16	*애완동물(애완동물) (애완동물)	주/아	수 10:00-12:00 목 19:00-21:00	15명	20	백태영	
17	*애완동물(애완동물) (애완동물)	주/아	수 10:00-12:00 목 19:00-21:00	15명	20	백태영	